

경기

○ 서울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2월 산업생산지수는 84.1(005=100)로 전년동월대비 0.1% 증가
- 부문별로는 중공업 부문 4.7% 증가, 경공업 부문 2.7% 감소
- 서울의 2월 제조업부문 출하, 재고 각각 증가하여 의도된 재고증가 단계로 해석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감소, 부문별로 백화점 증가, 대형마트 감소

- 서울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5,187억으로 전년동월대비 0.7% 감소
-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판매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가상승과 월수가 28일인 2월인 이유 등으로 판매액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8.8로 전월대비 4.1% 상승
- 상품성질별로 상품의 경우 전월대비 0.9%, 서비스는 0.4% 각각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8%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3% 하락

고용

○ 서울의 2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2월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4% 증가한 8,408천명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참가율은 62.1%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

○ 서울의 2월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2월 취업자는 4,94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4천명(3.0%)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52천명(1.9%), 여자는 92천명(4.5%)이 각각 증가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3% 증가, 전국대비(-1.8%) 1.9p 차이를 보임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2.5% 상승하여 꾸준히 플러스 증가

○ 서울의 2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고용률 상승

- 서울의 2월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은 남자는 0.6%p 하락한 5.9%, 여자는 0.6%p 하락한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2월 고용률은 58.8%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0%p, 여자는 1.8%p 상승
- 서울의 실업률(5.3%)은 전국 실업률(4.3%)과 1.0%p 차이를 나타냈으며, 고용률의 경우 서울(58.8%)과 전국(57.1%)이 1.7%p 차이를 나타냄

부동산

○ 서울의 2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6,42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0.4% 감소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3조 9,58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7% 감소
- 공공부문에서는 철도, 교량공사 등의 수주감소로 전년동월대비 90.5% 감소, 민간부문에서는 재개발 및 신규주택, 교육원 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37.6% 감소

○ 서울의 2월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지속

- 서울(0.3%)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상승폭 다소 확대
- 강북지역(0.1%)은 광진구(0.6%), 마포구(0.3%)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소폭 상승
- 강남지역(0.2%)은 관악구(0.8%), 서초구(0.7%)에서 상승폭 다소 확대

○ 서울의 2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폭 확대

- 서울(1.6%)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세 선호현상으로 전월대비 상승폭 다소 확대
- 강북지역(1.7%)은 성동구(2.9%), 노원구(2.3%)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상승
- 강남지역(1.7%)은 동작구(2.7%), 관악구(2.1%)에서 전월대비 상승률 성장

금융

○ 서울지역 1월 기준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1월 중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26조 5,551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5조 297억원(0.96%) 증가

○ 서울의 2월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2월 중 신설법인수는 1,501개로 전년동월대비 8.08%(132개) 감소

○ 서울의 2월 신설/부도법인 비율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2월 중 신설/부도법인 비율은 33.3배로 전월(76.9)보다 하락

○ 서울의 2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2월 서울의 수출은 36.3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1.2% 증가. 수출 1순위는 자동차부품, 다음은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편직물, 반도체, 합성수지 등의 순
- 서울의 2월 수입은 87.1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9.5% 증가. 수입 1순위는 석유 제품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의

| 생 · 산 |

서울의 2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2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2월 산업생산지수는 84.1(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0.1% 증가
-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의복 및 모피 등은 감소하였으나 섬유제품 등에서 증가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 감소, 경공업 증가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0.1% 감소하며 3개월 동안 마이너스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하여 플러스 성장세로 반등

■ 전국의 2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2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9.1% 증가, 전월대비로는 2.3% 감소
-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의약품(-11.3%), 식료품(-4.3%) 등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23.0%), 기계장비(20.2%) 등의 호조로 9.1%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부동산임대(-20.2%), 전문·과학기술(-7.5%), 하수폐기물처리(-4.0%)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7.2%), 운수(4.4%),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4.3%) 등이 증가하여 0.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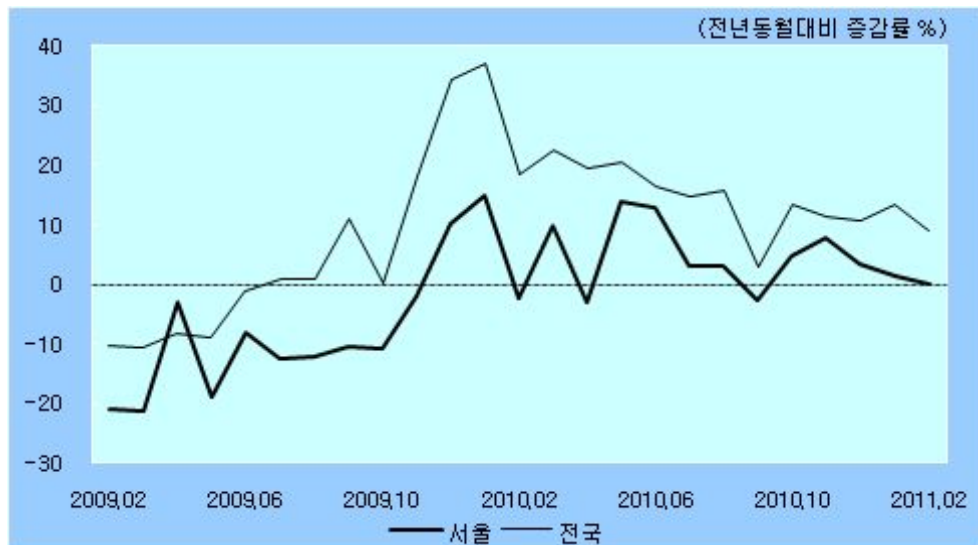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비, %)

구 분		2010년				2011년	
		2월	10월	11월	12월p	1월p	2월p
전 년 동 월 비	서울 (제조업)	-2.2	4.6	7.7	3.5	1.3	0.1
	중공업	2.7	5.8	1.4	1.6	-2.6	4.7
	경공업	-4.4	4.0	10.8	4.6	2.7	-1.8
	전국	18.3	13.4	11.2	10.7	13.4	9.1

주: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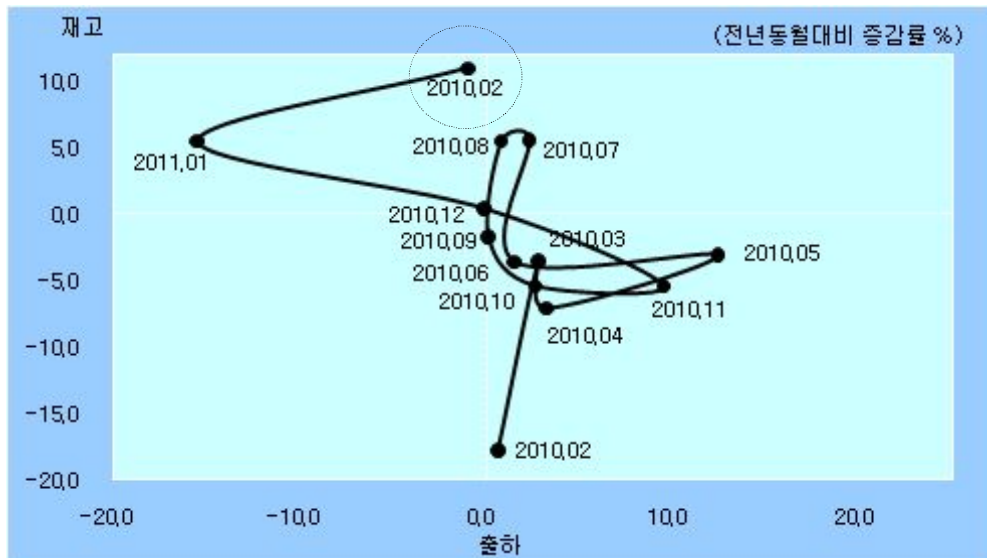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서울의 2월 제조업부문 의도된 재고증가 단계

■ 서울의 2월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출하, 재고 각각 증가

- 서울의 2월 재고지수는 147.9(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1.0% 증가, 업종별로는 금속가공 등은 감소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섬유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증가
- 출하 감소, 재고 증가하여 의도된 재고증가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전월대비 재고율 증가, 부문별로는 중공업 감소, 경공업 증가
 - 서울의 2월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179.7로 전월대비 28.5%p 증가하였고, 전국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96.4%로 전월대비 6.7%p 증가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12.5%p 감소한 158.3%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46.0%p 증가한 185.1%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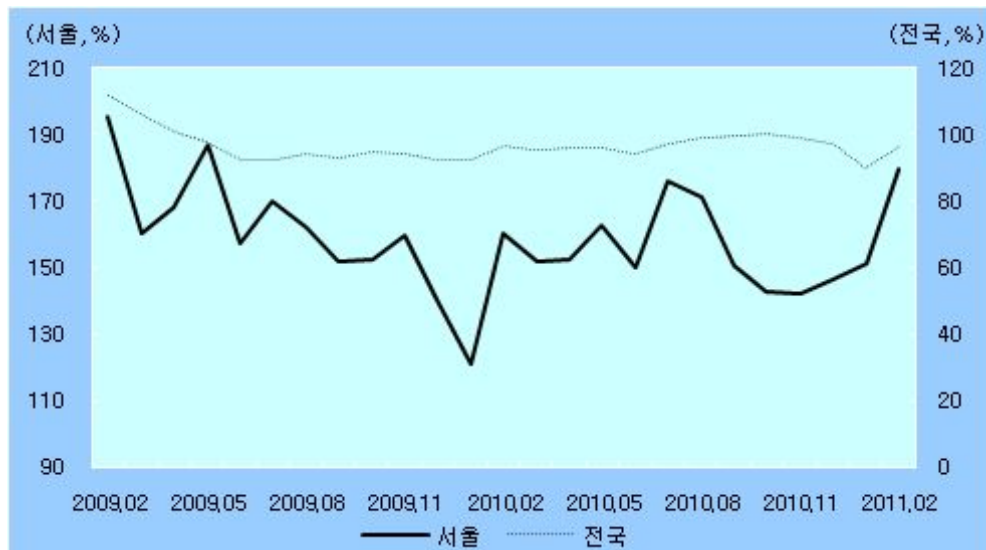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전월대비 증감
		2월	10월	11월	12월p	1월p	2월p	
재고율	서울	160.4	142.9	142.1	146.6	151.2	179.7	28.5
	중공업	160.4	160.3	135.4	116.9	170.7	158.3	-12.5
	경공업	155.9	132.2	141.7	161.4	139.1	185.1	46.0
	전국	96.7	100.5	99.1	97.3	89.7	96.4	6.7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서울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5,187억으로 전년동월대비 0.7% 감소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4.8% 증가, 대형마트 7.7%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제품가격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판단됨

■ 전국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국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4조 7,357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0% 감소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3.1% 증가, 대형마트는 10.8% 감소
- 유형별로는 컴퓨터·통신기기, 가전제품, 승용차 등의 내구재가 9.0% , 오락, 의복 등의 준내구재 2.3% 증가, 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6.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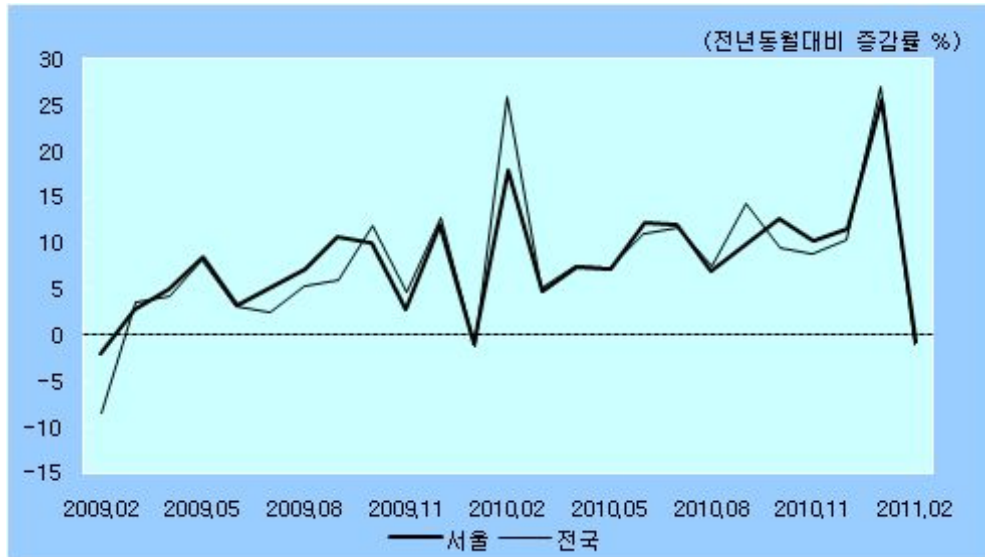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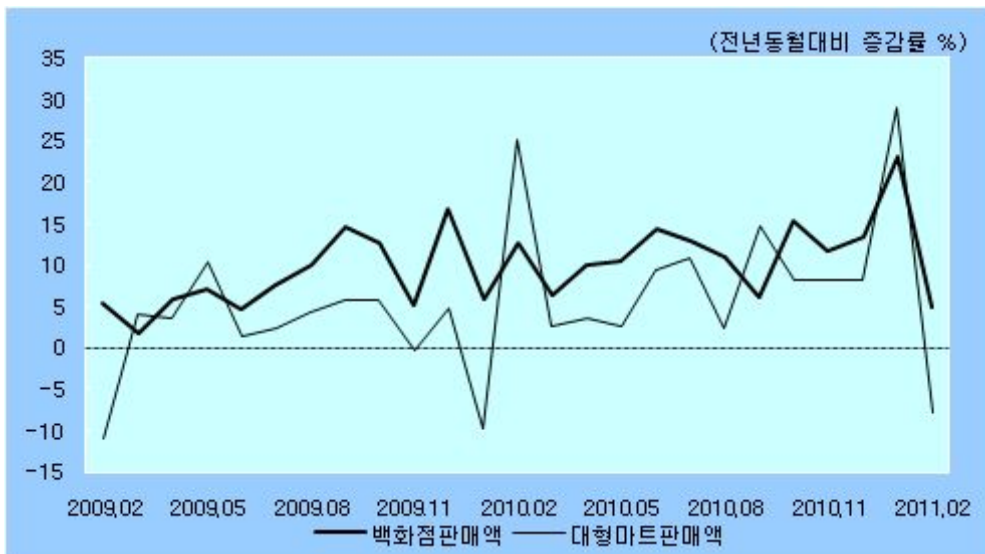
구 분		2010년				2011년	
		2월	10월	11월	12월p	1월p	2월p
판매액	서울	1529.6 (17.9)	1786.2 (12.6)	1759.9 (10.3)	1905.0 (11.5)	1977.3 (25.5)	1518.7 (-0.7)
	백화점	855.8 (12.7)	1130.6 (15.3)	1104.6 (11.7)	1198.0 (13.4)	1171.2 (23.2)	896.9 (4.8)
	대형마트 (할인점)	673.7 (25.1)	655.5 (8.3)	655.2 (8.1)	707.0 (8.3)	806.0 (29.0)	621.8 (-7.7)
	전국	4782.8 (25.9)	5123.2 (9.4)	5075.3 (8.9)	5517.9 (10.3)	5991.6 (26.9)	4735.7 (-1.0)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서울의 2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8.8로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4.1% 각각 상승
- 상품성질별로 상품은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7.1% 각각 상승, 서비스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2.6% 각각 상승

■ 서울의 2월 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상승,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하락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8% (전도시:0.9%), 전년동월대비 4.5%(전도시:5.2%) 각각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3% 하락(전도시:0.8%), 전년동월대비 23.0%(전도시:25.2%) 상승

■ 전국 2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상승

- 전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9.8(2005년=100)로 전월대비 0.8% 상승하여 3개월 연속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9% 상승, 전년동월대비 5.2%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8% 상승, 전년동월대비 25.2% 상승
- 16개 광역시도별로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대전, 강원 등 6개 시도는 전도시 평균(0.8%)보다 높게 0.9~1.1%씩 상승하였고, 서울, 경기 등 10개 시도는 0.6~0.8%씩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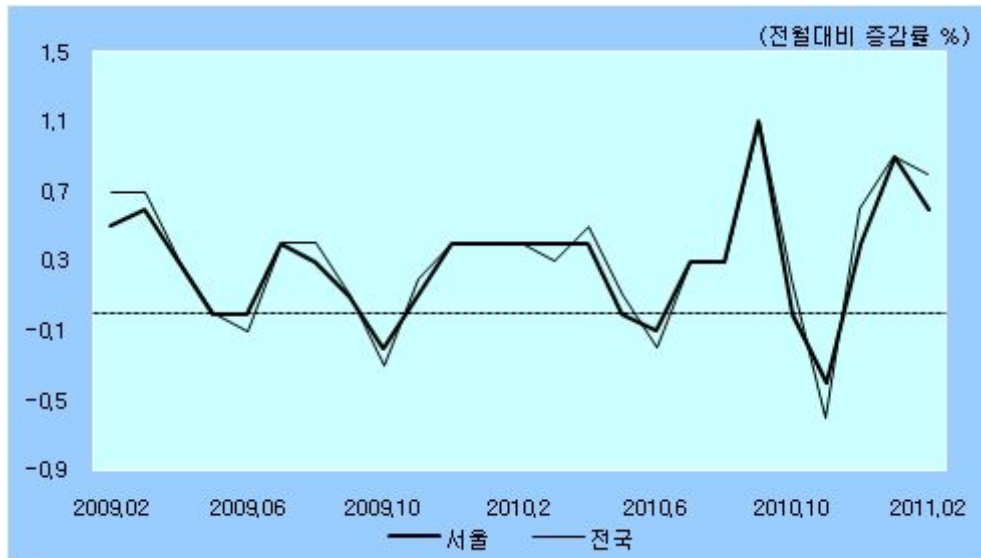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비	서울		0.4 (2.6)	1.1 (3.5)	0.0 (3.7)	-0.4 (3.2)	0.4 (3.3)	0.9 (3.9)	0.6 (4.1)
	상품 성질별	상품	0.3 (3.3)	2.6 (6.0)	-0.3 (6.2)	-1.2 (4.8)	1.1 (5.3)	1.7 (6.4)	0.9 (7.1)
		서비스	0.4 (2.2)	0.4 (2.2)	0.2 (2.4)	-0.1 (2.2)	0.1 (2.1)	0.6 (2.5)	0.4 (2.6)
	생활물가		0.4 (3.3)	1.7 (3.9)	-0.2 (4.1)	-0.8 (3.2)	0.4 (3.2)	1.4 (4.1)	0.8 (4.5)
	신선식품		3.1 (6.0)	22.1 (44.8)	-2.7 (44.9)	-10.1 (34.6)	1.3 (29.9)	4.3 (27.2)	-0.3 (23.0)
	전국		0.4 (2.7)	1.1 (3.6)	0.2 (4.1)	-0.6 (3.3)	0.6 (3.5)	0.9 (4.1)	0.8 (4.5)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서울의 2월 신선식품 대부분의 모든 품목 가격상승

- 소비자들의 생활필수 품목 중 신선식품의 전월대비 가격동향은 채소류의 경우 평균 3.68%, 양곡과 수산물의 경우 평균 0.38% 각각 상승
- 청과류 중 양파 15.0%, 마늘 1.8%, 배추와 무는 각각 1.6% 상승하였으며, 파의 경우 1.5% 하락
- 수산물의 경우 고등어는 보합이었으며 멸치는 0.9% 하락, 양곡류인 쌀은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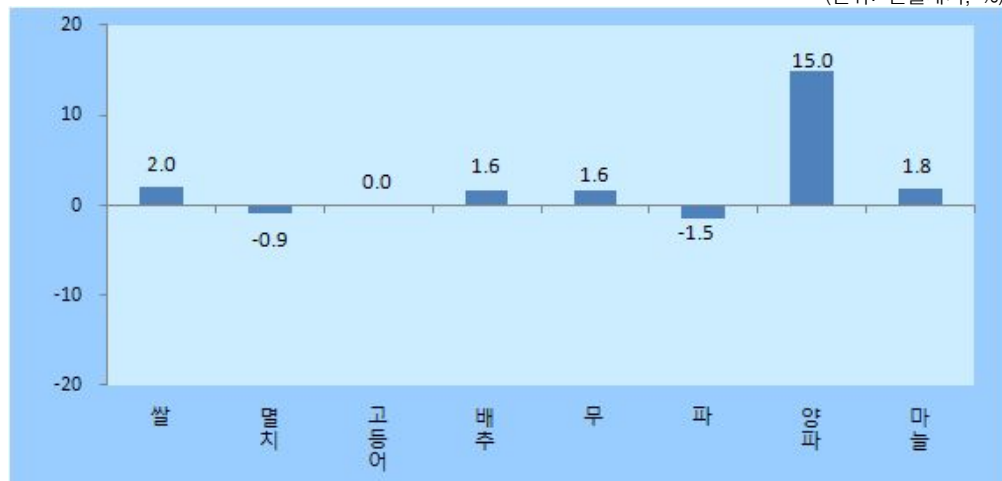
〈표〉 신선식품 가격동향

(단위: 전월비, 원, %)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증감률
양곡	쌀	41,968	42,435	39,109	39,046	41,609	42,461	2.0
수산	멸치	2,582	2,543	2,677	2,428	2,615	2,592	-0.9
	고등어	2,500	2,714	3,545	3,674	4,000	4,000	0.0
채소	배추	7,816	7,679	3,908	3,404	4,728	4,805	1.6
	무	2,983	4,069	2,849	2,655	4,728	4,805	1.6
	파	4,766	5,927	4,974	4,181	4,302	4,238	-1.5
	양파	1,717	1,726	1,910	1,802	1,962	2,307	15.0
	마늘	11,383	12,329	11,121	8,866	6,863	6,986	1.8

주: 52개 생활필수품목 중 신선식품만 선별하여 가격동향을 살펴보았음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단위: 전월대비, %)



주: 멸치(건멸치), 고등어(중품), 배추(가을(상품), 고랭지(상품), 봄(상품), 월동(상품)), 무(가을(상품), 고랭지(상품), 봄(상품)), 파(대파(상품)), 양파(상품), 마늘(깐마늘(상품)) 가 기준

〈그림〉 서울시 농수산물 시장의 월간 등락품목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서울의 2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2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2월 15세이상 인구는 8,40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천명(0.5%)이 증가, 경제활동인구는 5,22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1천명(2.4%)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2.1%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
-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3,18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7천명(-2.4%)이 감소

■ 전국의 2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2월 15세이상인구는 40,87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9천명(1.1%) 증가, 경제활동인구는 24,43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96천명(1.6%)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422천명으로 230천명(1.6%)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009천명으로 166천명(1.7%)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59.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경제활동인구	서울	2.2 (0.2)	3.4 (0.0)	3.6 (0.5)	1.9 (-0.3)	2.7 (0.5)	1.4 (-1.2)	2.4 (1.2)
	남자	1.5 (-0.1)	2.4 (-0.4)	2.9 (0.6)	0.9 (-0.4)	1.4 (0.2)	0.1 (-1.2)	1.3 (1.1)
	여자	3.2 (0.6)	4.6 (0.6)	4.4 (0.3)	3.3 (-0.3)	4.5 (1.0)	3.2 (-1.1)	3.8 (1.3)
	전국	1.6 (-0.2)	1.1 (0.3)	1.4 (0.4)	0.9 (-0.6)	2.0 (-1.2)	0.1 (-1.7)	1.6 (1.3)
경제활동참가율	서울	61.0	61.8	62.1	61.8	62.1	61.4	62.1
	남자	72.4	73.0	73.4	73.1	73.2	72.3	73.1
	여자	50.2	51.2	51.4	51.2	51.7	51.1	51.8
	전국	59.5	61.2	61.4	61.0	60.1	59.0	59.8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취 · 업 · 자 |

서울의 2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2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2월 취업자는 4,94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4천명(3.0%)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02천명, 여자는 2,14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52천명(1.9%), 여자는 92천명(4.5%)이 각각 증가
- 산업별로는, 전년동월대비 건설업 44천명(13.5%), 사업개안·공공서비스업 133천명(7.4%),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8천명(3.5%), 제조업 7천명(1.3%)이 각각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 3천명(-8.1%), 도소매·음식숙박업 66천명(-4.8%)이 각각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3% 증가, 전국대비(-0.9%) 3.2%p 차이를 나타냄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2.5% 상승하여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이어감

■ 전국의 2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2월 취업자는 23,33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9천명(2.1%)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77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2천명(2.2%) 증가하였고, 여자는 9,561천명으로 177천명(1.9%) 증가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와 3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증가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9% 감소한 반면, 고령층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6.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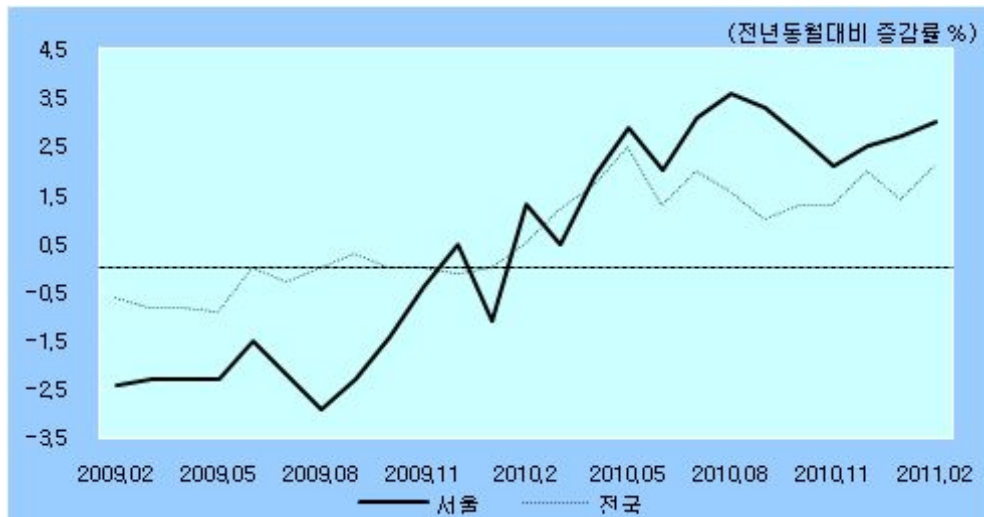
〈표〉 연령별 취업동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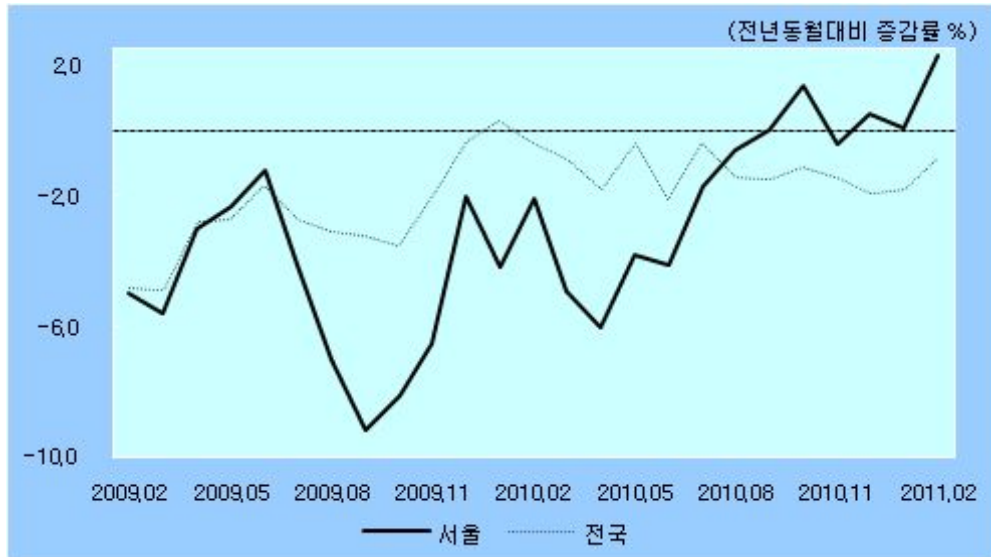
구 분		2010년					2011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취업자	서울	1.3 (0.4)	3.3 (0.0)	2.7 (0.3)	2.1 (0.2)	2.5 (0.3)	2.7 (-1.7)	3.0 (0.7)
	남자	0.9 (0.1)	2.6 (-0.4)	1.8 (0.2)	0.4 (-0.2)	1.0 (0.6)	1.5 (-1.9)	1.9 (0.5)
	여자	1.7 (0.8)	4.1 (0.4)	4.0 (0.4)	4.3 (0.7)	4.5 (0.0)	4.4 (-1.4)	4.5 (0.9)
	전국	0.5 (0.0)	1.0 (0.2)	1.3 (0.5)	1.3 (-0.3)	2.0 (-1.8)	1.4 (-2.1)	2.1 (0.6)
청년층 취업자	서울	-2.1 (-1.1)	0.0 (-2.8)	1.4 (0.6)	-0.4 (-0.2)	0.5 (3.4)	0.1 (-1.2)	2.3 (1.1)
	전국	-0.4 (-2.3)	-1.5 (-2.0)	-1.1 (-0.5)	-1.4 (1.4)	-1.9 (0.1)	-1.8 (1.3)	-0.9 (-1.5)
고령층 취업자	서울	6.7 (0.6)	7.8 (2.7)	3.5 (-0.9)	1.3 (-1.3)	2.5 (-1.0)	10.4 (-3.2)	12.5 (2.6)
	전국	-1.7 (3.0)	0.9 (1.1)	0.8 (0.4)	0.6 (-4.4)	5.8 (-9.6)	4.6 (-9.0)	6.4 (4.8)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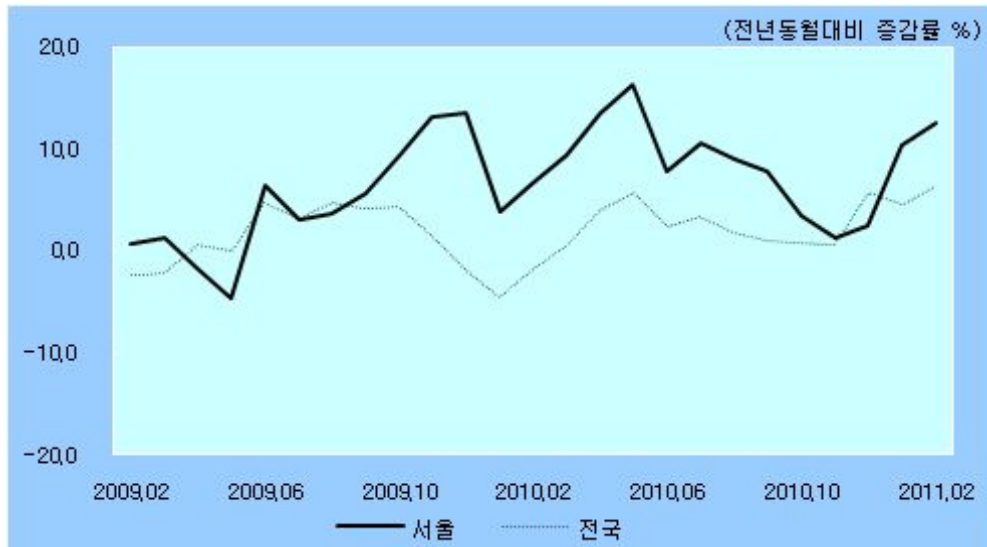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서울의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단순종사자 등은 증가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5천명(155.2%),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11천명(8.8%), 사무종사자 67천명(8.0%)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4천명(1.7%)이 각각 증가
- 반면, 서비스·판매종사자는 63천명(-4.9%)이 감소

■ 서울의 비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감소,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비임금근로자는 1,173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774천명으로 나타남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7천명(-4.5%), 무급가족종사자는 1천명(-0.6%)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152천명(7.5%), 임시근로자는 14천명(1.2%), 일용근로자는 26천명(6.6%)이 각각 증가

■ 서울의 36시간 이상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미만 취업자는 58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54천명(-64.4%)이 감소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27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49천명(41.3%)이 증가
-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4천명(-17.5%)이, 18~35시간 취업자는 1,010천명(-72.9%)이 각각 감소
- 36시간 이상 취업자 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20천명(21.9%)이, 54시간 이상 취업자는 729천명(112.0%)이 각각 증가
- 일시휴직자는 8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천명(-36.6%) 감소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5.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4시간 증가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산업별	제조업	0.3 (2.1)	9.2 (-0.8)	11.6 (3.2)	6.4 (-3.6)	3.1 (-2.1)	-0.9 (-3.7)	1.3 (4.3)
	SOC 및 기타서비스업	1.4 (0.2)	2.6 (0.0)	1.7 (-0.1)	1.5 (0.7)	2.4 (0.7)	3.1 (-1.4)	3.2 (0.3)
	사업·개인·공공서비스	0.0 (1.7)	3.5 (0.7)	2.1 (-0.3)	3.0 (1.0)	5.3 (0.7)	8.0 (-1.4)	7.4 (1.1)
	도소매·음식숙박	3.2 (-1.2)	-2.8 (-0.5)	-3.9 (-1.0)	-4.8 (0.6)	-4.6 (1.1)	-5.6 (-1.6)	-4.8 (-0.4)
	전기·운수·통신·금융	6.6 (0.3)	3.8 (0.0)	5.6 (2.9)	5.9 (0.8)	4.8 (0.9)	3.8 (0.0)	3.5 (0.0)
	건설업	-9.3 (-2.4)	16.0 (-1.3)	12.5 (-1.8)	8.8 (-1.0)	9.3 (-1.5)	11.7 (-3.9)	13.5 (-0.9)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0.7 (-0.6)	-2.9 (-0.5)	-1.9 (0.8)	-2.3 (-0.2)	-0.1 (1.7)	0.4 (-0.6)	1.7 (0.7)
	기능·기계작조·조립·단조종사	3.4 (3.3)	16.0 (0.7)	11.8 (-0.3)	6.4 (-2.6)	8.0 (-0.3)	9.2 (-3.6)	8.8 (2.8)
	서비스·판매종사자	0.6 (-1.8)	-1.1 (0.8)	-4.1 (-1.3)	-2.6 (0.9)	-3.1 (0.1)	-5.1 (-0.9)	-4.9 (-1.6)
	사무종사자	2.4 (1.3)	0.8 (-1.7)	6.5 (2.6)	9.3 (4.4)	6.4 (-0.2)	8.9 (-1.3)	8.0 (0.4)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0.7 (0.7)	4.6 (-0.3)	4.3 (0.6)	3.4 (0.2)	4.3 (0.6)	5.1 (-2.2)	5.4 (0.9)
	비임금근로자	2.9 (-0.4)	-0.8 (1.0)	-1.9 (-0.8)	-2.0 (0.2)	-3.0 (-0.5)	-4.3 (0.1)	-3.9 (-0.1)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실 · 업 · 률 |

서울의 2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고용률 상승

■ 서울의 2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서울의 2월 실업자는 27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천명(-7.7%)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7천명, 여자는 9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4천명(-7.1%), 9천명(-8.7%)이 감소
- 실업률은 5.3%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9%, 여자는 4.3%로 전년동월대비 모두 0.6%p 하락

■ 전국의 2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국의 2월 실업자는 1,09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4천명(-6.3%)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4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3천명(-8.8%), 여자는 44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천명(-2.4%) 감소
- 실업률은 4.5%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5%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하였고, 여자는 4.5%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서울 및 전국의 2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서울의 2월 고용률은 58.8%로 전년동월대비 1.4%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8.7%, 여자는 49.5%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0%p, 1.8%p 상승
- 서울의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과 1.7%p 차이
- 전국의 2월 고용률은 57.1%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8.9%로 전년동월대비 0.7%p, 여자는 45.8%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연령계층별로 보면 모든 연령계층에서 전년동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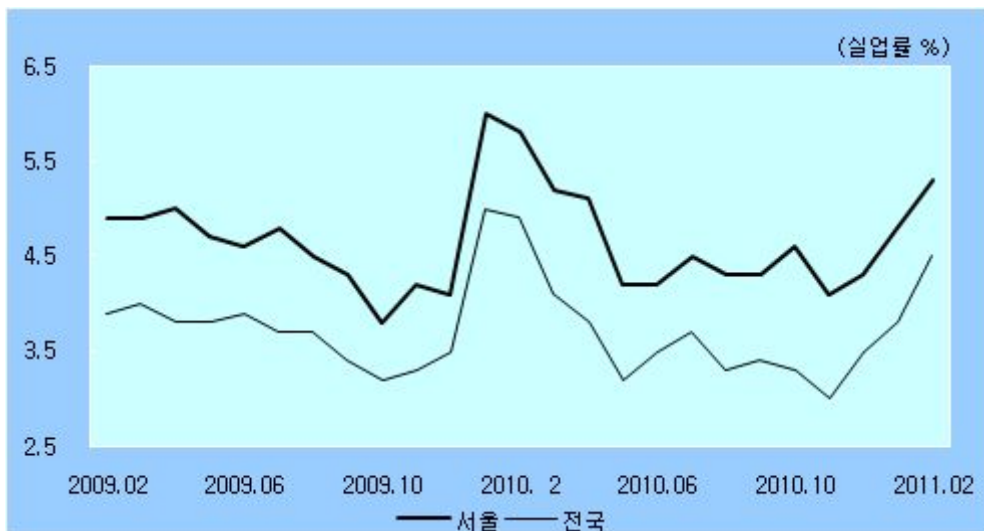
〈표〉 서울의 실업 동향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실업률	서울	5.8	4.3	4.6	4.1	4.3	4.8	5.3
	남자	6.5	4.9	5.3	5.1	4.8	5.4	5.9
	여자	4.9	3.6	3.6	2.7	3.6	4.0	4.3
	전국	4.9	3.4	3.3	3.0	3.5	3.8	4.5

		2009년			2010년			
		2/4	3/4	4/4	1/4	2/4	3/4	4/4
청년층 실업률	서울	7.8	8.4	7.8	10.0	8.1	7.7	8.0
	전국	8.0	8.1	7.6	9.5	7.7	7.6	7.1
고령층 실업률	서울	3.2	2.0	1.7	7.2	4.3	3.1	2.7
	전국	1.9	1.6	1.5	5.8	2.1	2.0	1.9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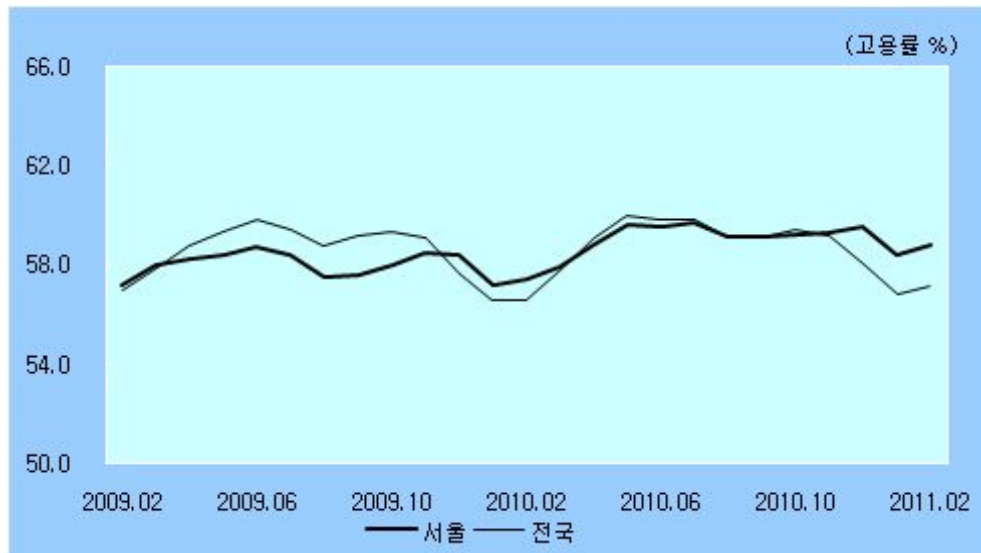
〈표〉 서울의 고용 동향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고용률	서울	57.4	59.1	59.2	59.3	59.5	58.4	58.8
	남자	67.7	69.4	69.5	69.3	69.7	68.4	68.7
	여자	47.7	49.4	49.5	49.9	49.8	49.1	49.5
	전국	56.6	59.1	59.4	59.2	58	56.8	57.1

		2009년			2010년			
		2/4	3/4	4/4	1/4	2/4	3/4	4/4
청년층 고용률	서울	45.6	43.8	42.8	42.8	44.1	44.0	43.7
	전국	41.1	40.7	40.1	40.1	40.8	40.6	39.9
고령층 고용률	서울	30.3	31.1	32.5	29.4	32.7	32.7	32.0
	전국	38.3	38.9	36.4	31.4	38.4	38.2	35.8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고용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서울의 2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2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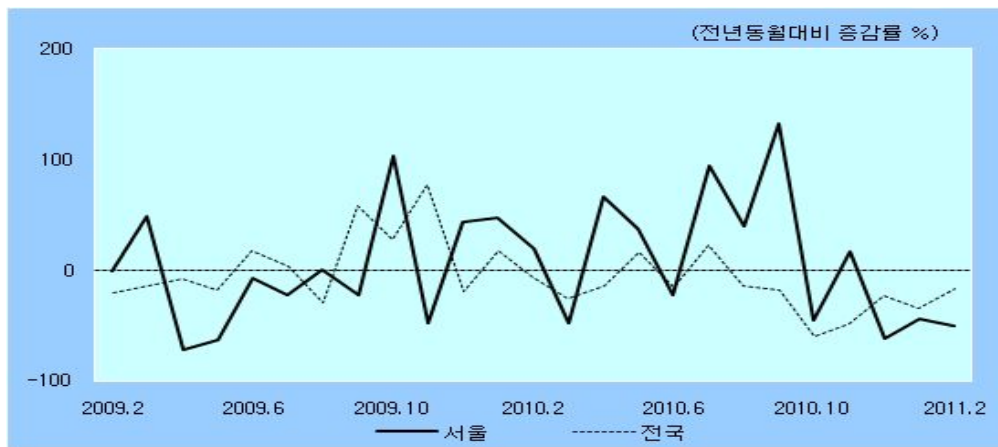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6,42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0.4% 감소
- 공공부문에서는 관공서 및 철도, 교량 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90.5% 감소하였으며, 민간부문에서는 재개발 및 재건축 주택, 교육원 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37.6% 감소
- 공종별로는 전년동월대비 건축부문은 44.7%, 토목부문은 81.5% 각각 감소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3조 9,58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7% 감소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10년				2011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2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서울	1,293	1,045	1,945	2,020	519	642	-50.4	23.6
발주자별	공공	362	192	79	607	141	-90.5	-75.1
	민간	931	853	1,866	1,265	359	-37.6	61.5
공종별	건축	1,094	898	1,932	1,829	497	-44.7	21.7
	토목	199	148	13	191	22	-81.5	68.1
전국	4,615	4,274	7,459	14,014	4,658	3959	-16.7	-15.0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서울의 2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폭 다소 확대

■ 서울의 2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폭 다소 확대

- 서울과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3% 상승
- 주택유형별 매매가격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각각 전월대비 0.3%, 0.2% 상승하고, 연립주택은 0.2% 상승하면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에서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

■ 전국의 2월 주택매매가격 6개월 연속 상승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의 전월대비 증감률은 0.8%로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광역시와 기타지방이 각각 1.2%, 1.1% 상승하여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 지속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2월	1월	2월		
서울		103.0	101.6	101.9	-1.1	0.3
아파트		102.9	100.5	100.8	-2.1	0.3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102.2	100.6	100.7	-1.5	0.1
	강남	103.9	102.6	103.0	-0.9	0.4
전국		101.9	103.9	104.7	2.8	0.8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 전월대비 소폭 상승

- 강북지역은 광진구와 마포구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1% 소폭 상승
- 광진구가 도심으로의 진입을 선호하여 유입되는 수요와 전세물량 부족에 의한 매매로의 전환수요 등으로 0.6% 상승
- 마포구는 여의도와 강남 등 도심으로 진입이 편리하여 직장인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세 물량 부족으로 인한 소형 중심의 매매로의 전환수요로 0.3% 상승

■ 강남, 전월대비 상승폭 다소 확대

- 강남지역은 관악구와 서초구를 중심으로 0.4% 상승하여 전월대비 상승폭 다소 확대
- 관악구가 다른 강남지역 대비 가격부담이 크지 않아 전세에서 매매로의 전환수요가 증가하며 전월대비 0.8% 상승하여 강남지역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승률이 다소 높음
- 서초구는 신학기를 앞두고 타 지역대비 학군이 우수한 반포지역 주택에 대한 선호 등이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월대비 0.7%로 상승폭 확대

■ 서울의 2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상승세 지속

- 서울의 2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1808.03만원으로 전월(1,803.44만원)대비 소폭 상승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301만원), 서초구(2,873만원), 용산구(2,551만원), 송파구(2,411만원), 양천구(1,955만원), 광진구(1,881만원), 강동구(1,871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02만원), 도봉구(1,098만원), 중랑구(1,132원), 강북구(1,139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서울의 2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폭 확대

■ 서울의 2월 주택전세가격은 전세 선호현상으로 전월대비 1.7% 상승

- 강북지역은 성동구, 노원구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전월대비 1.7% 상승하여 상승폭이 크게 확대
- 성동구는 옥수 재개발지역 이주수요와 신혼부부 수요 등의 증가로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전월대비 2.9% 상승
- 노원구는 신혼부부 및 젊은층이 선호하는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였고,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저가 전세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전월대비 2.3% 상승
- 강남지역은 동작구, 관악구 등에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전월대비 1.7% 상승
- 동작구는 교통이 편리한 사당지역을 중심으로 직장인, 신혼부부 수요 등이 증가하여 물량 부족으로 전월대비 2.7% 상승
- 관악구는 강남지역 대비 전세가격이 낮아 유입되는 수요로 전세물량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학기 학생수요와 역세권 소형 중심의 신혼부부, 직장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2.1%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세

■ 전국의 2월 주택전세가격은 봄 이사철 수요 등으로 전월대비 1.6% 상승

- 전국(1.6%)의 주택전세가격은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를 유지하려는 수요와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물량확보 등으로 수요 대비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상승세 지속
- 서울(1.7%), 인천(0.8%), 경기(2.0%) 모두 상승하며 수도권(1.7%)의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광역시(1.5%)와 기타지방(1.3%)도 상승세 지속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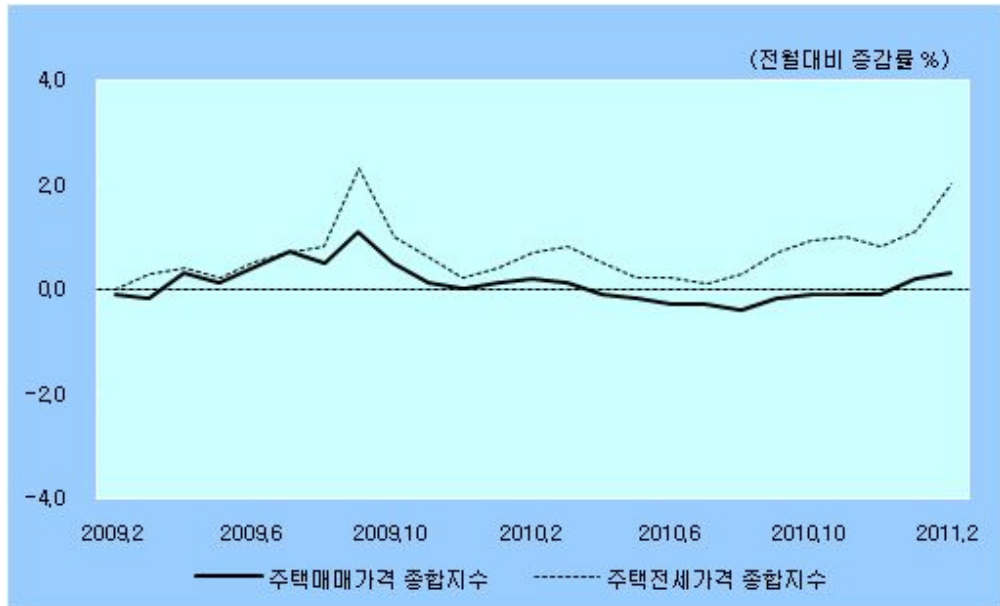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2월	1월	2월		
서울		107.1	113.8	115.8	8.7	2.0
아파트		109.8	117.4	119.9	10.1	2.5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104.7	110.2	112.1	7.4	1.9
	강남	108.6	117.4	119.4	10.8	2.0
전국		103.7	111.7	113.5	9.8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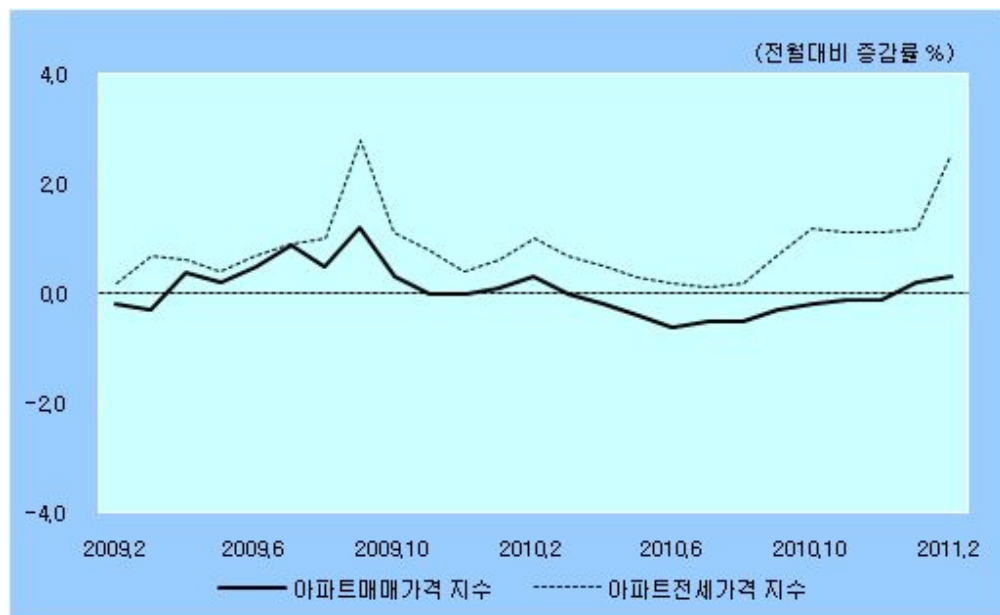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서울의 2월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소폭 상승

- 2월 중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5.6%로 전월(44.8%)보다 0.8%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세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국 평균 57.8%보다 12.2%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는 전월(12.5%p)보다 소폭 상승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8.0%, 강남 43.7%로 강남이 강북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강남·북간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지난 4개월간 줄어드는 추세를 마감하고 소폭 상승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2월 회사채 금리 전월대비 소폭 하락

- 2월 중 국고채 가파른 오름세 뒤 하락으로 전월대비 소폭 하락
 - 2월 중 국고채(3년)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지속하여 4.1%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저가매수세 유입, 북아프리카·중동사태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증대,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 등으로 하락하며 전월대비 0.7% 하락
- 회사채 금리 전월대비 소폭 하락, CD 금리는 상승세 지속
 - 2월 중 회사채(3년) 금리는 전월대비 0.02%p 하락하여 2월 중 4.50%로 마감
 - 2월 중 CD(91일)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기대 및 MMF 부진 지속에 따른 매수세 감소 등으로 1월 중순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며 2월 중 3.17%로 마감
- 장·단기 금리차는 전월대비 소폭 하락
 - 2월 중 장·단기 금리차는 국고채(장기) 금리의 하락과 CD(단기)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세에 힘입어 전월대비 0.24%p 하락한 0.67%로 마감
- KOSPI 지수 전월대비 하락
 - 2월 중 코스피는 중국의 금리인상 및 추가 긴축 우려, 북아프리카·중동지역 소요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불안 등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하여 2월 중 2,002.87p로 마감
- 2월 중 원/달러 환율은 전월대비 하락
 - 2월 중 원/달러 환율은 전월대비 -11.02원 하락하며 12월 이후 하락세 지속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간 중 평균, 단위: %, %p)

구 분		2010년				2011년		전월대비 증감 (B-A)
		2월	10월	11월	12월	1월(A)	2월(B)	
금리	국고채(3년)	4.29	3.24	3.40	3.25	3.96	3.84	-0.12
	CD(91일물)	2.88	2.66	2.73	2.80	3.05	3.17	0.12
	콜금리(1일)	2.00	2.26	2.37	2.50	2.66	2.75	0.09
	장단기 금리차 ¹⁾	1.41	0.58	0.67	0.75	0.91	0.67	-0.24
주 가	KOSPI	1,682.16	1,889.70	1,924.71	2,002.50	2,091.61	2,002.87	-88.74
	KOSDAQ	535.44	509.94	514.88	505.36	528.60	517.58	-11.02
환율 (₩/US\$)		1,138.77	1,122.23	1,128.08	1,147.55	1,120.07	1,118.14	-1.93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2월 중 은행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

- 2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되면서 증가로 전환
-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양도 포함)은 대출금리가 상승하였으나 설연휴 이후 아파트 입주 및 이사 수요 증가,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 강화 등으로 증가규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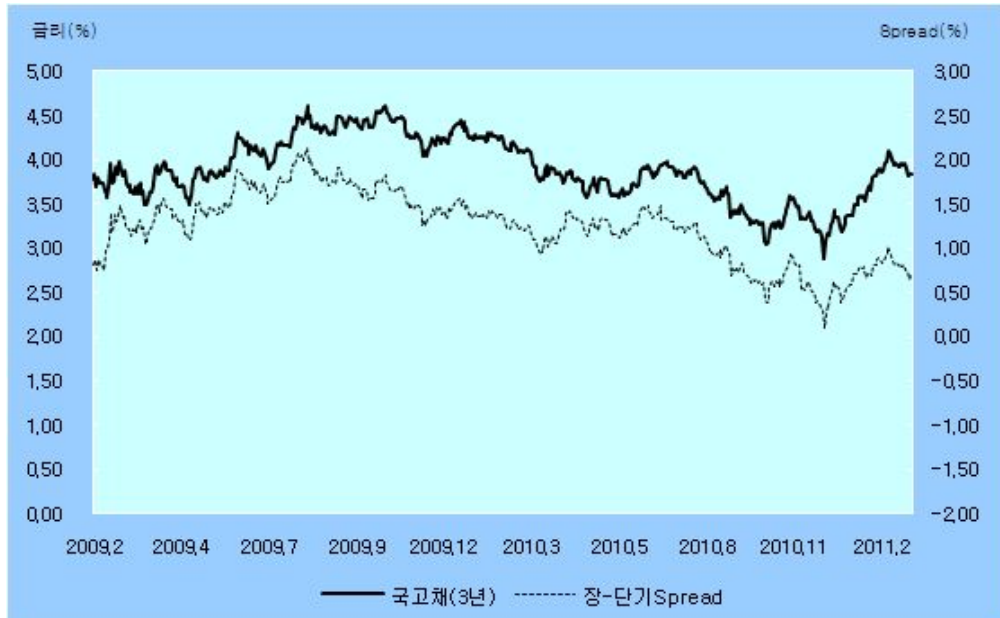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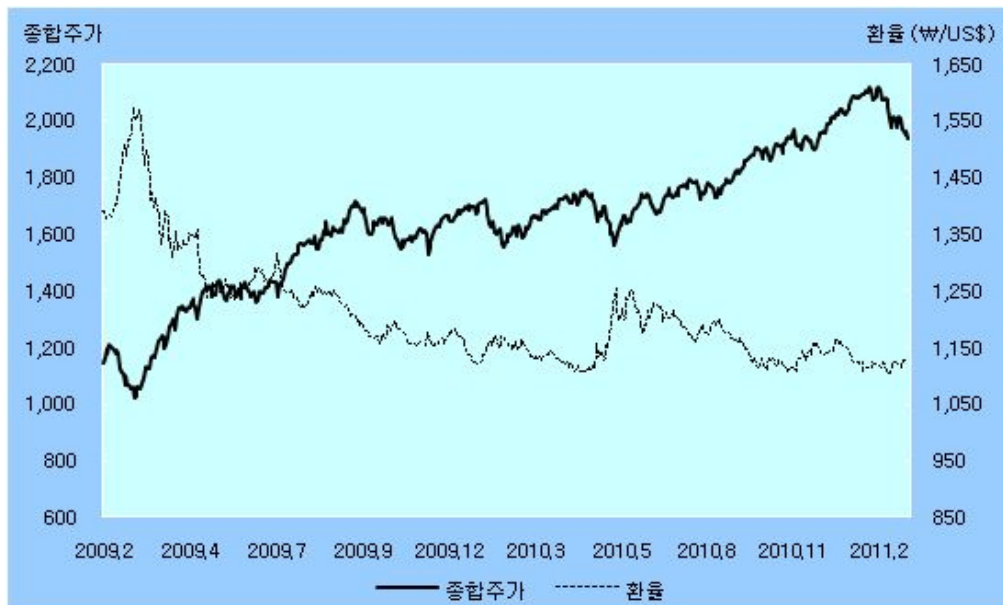
구 분	2010년				2011년		월말잔액		전월대비 증감률
	연중	10월	11월	12월	1월	2월	2011년		
							1월	2월	
가계대출 ¹⁾	21.8	2.7	4.1	2.1	-1.0	1.5	429.5	431.7	2.2
주택담보대출 ²⁾	20.3	2.2	2.9	2.7	0.8	1.8	285.3	287.8	2.5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7	0.5	1.2	-0.5	-1.7	0.4	143.2	143.6	0.4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1월 기준 서울지역 전체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1월 중 서울지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26조 5,551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5조 297억원(0.96%) 증가
- 1월 전국의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323조 5,715억원으로 전월대비 8조 6,004억원(0.65%) 증가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2010년				2011년	전월대비 증감액	전월대비 증감률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서울	예금은행	414,043.1	428,399.7	430,077.3	423,631.2	426,698.5	3,067.3	0.72
	비은행기관	92,677.0	97,256.4	98,917.0	97,894.2	99,856.6	1,962.4	2.00
	합계	506,720.1	525,656.1	528,994.3	521,525.4	526,555.1	5,029.7	0.96
전국	예금은행	955,782.2	991,773.6	997,054.2	987,148.1	993,802.1	6,654.0	0.67
	비은행기관	306,344.0	322,268.1	326,025.3	327,823.0	329,769.4	1,946.4	0.59
	합계	1,262,126.2	1,314,041.7	1,323,079.5	1,314,971.1	1,323,571.5	8,600.4	0.65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신 · 설 · 법 · 인 · 동 · 향 |

서울의 2월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2월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2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501개로 전년동월대비 8.08%(132개), 전월대비 24.95%(499개) 감소
- 2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4,248개로 전년동월대비 9.00%(420개), 전월대비 24.96%(1,413개) 감소

■ 서울의 2월 업종별 신설법인수 모두 감소

- 2월 중 서울의 서비스업 신설법인수는 전년동월대비 6.58%(82개)가 감소하였으며, 건설 및 설비업과 제조업은 각각 21.21%(28개), 10.48%(26개) 감소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10년			2011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2월	11월	12월	1월	2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서울	1633	1,847	1,938	2,000	1,501	-499	-24.95	-132	-8.08
서비스업	1247	1,458	1524	1,566	1,165	-401	-25.61	-82	-6.58
제조업	248	257	299	283	222	-61	-21.55	-26	-10.48
건설 및 설비업	132	122	103	138	104	-34	-24.64	-28	-21.21
전국	4668	4,895	5,459	5,661	4,248	-1,413	-24.96	-420	-9.00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의 2월 신설/부도법인 배율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소폭 상승

- 2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대비 소폭 상승,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대비 0.01%p 상승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45개로 전월대비 73.0%(19개) 증가,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99개로 전월대비 33.7%(25개) 소폭 증가
-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33.3배로 전월(76.9배)보다 하락하였으며, 전국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 역시 55.2배로 전월(44.0배)보다 다소 하락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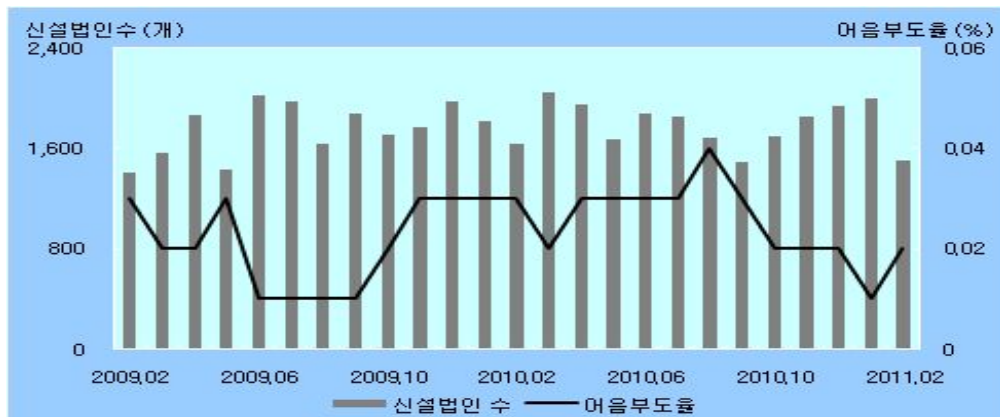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10년			2011년		전월비	
		2월	11월	12월	1월	2월	증감	증감률
서울	어음부도율	0.03	0.02	0.01	0.01	0.02	0.01	100.0
	부도업체 수	38	51	64	26	45	19	73.0
	신설/부도법인배율	56.3	47.4	37.2	76.9	33.3	43.6	-
전국	어음부도율	0.03	0.03	0.02	0.01	0.02	0.01	100.0
	부도업체 수	111	153	162	74	99	25	33.7
	신설/부도법인배율	63.9	47.1	44.0	76.5	55.2	-21.3	-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서울의 2월 신용보증 공급건수 · 금액 전월대비 증가

■ 보증지원 건수 및 금액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2월 중 2,054건, 40,038백만원으로 전월대비 보증건수 8.4%, 보증금액 72.8%,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7.3% 증가하였으며, 한편 전년 동월대비 보증지원 건수 및 금액은 각각 48.5%, 43.1% 감소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10년			2011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2월	11월	12월	1월	2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3,987	2,743	3,180	1,894	2,054	160	8.4	-1,933	-48.5
금액	70,373	51,075	46,034	23,167	40,038	16,871	72.8	-30,335	-43.1
건당평균금액	17.7	18.6	14.5	12.2	19.5	7.3	59.8	1.8	10.2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 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음식·숙박업 지원 비중 상승

- 2월 중 음식·숙박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22.0%로 전월(20.2%)대비 1.8%p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은 22.2%로 전월(23.4%)대비 1.2%p 감소하였으며 보증건수 기준 시 음식·숙박업종은 23.9%로 전월(20.1%)대비 3.8%p 증가, 서비스업종은 24.4%로 전월(28.1%)대비 3.7%p 감소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152	705	490	502	205	2,054
비율	7.4	34.3	23.9	24.4	10.0	100.0
금액	3,752	12,865	8,806	8,896	5,717	40,036
비율	9.4	32.1	22.0	22.2	14.3	10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기업 지원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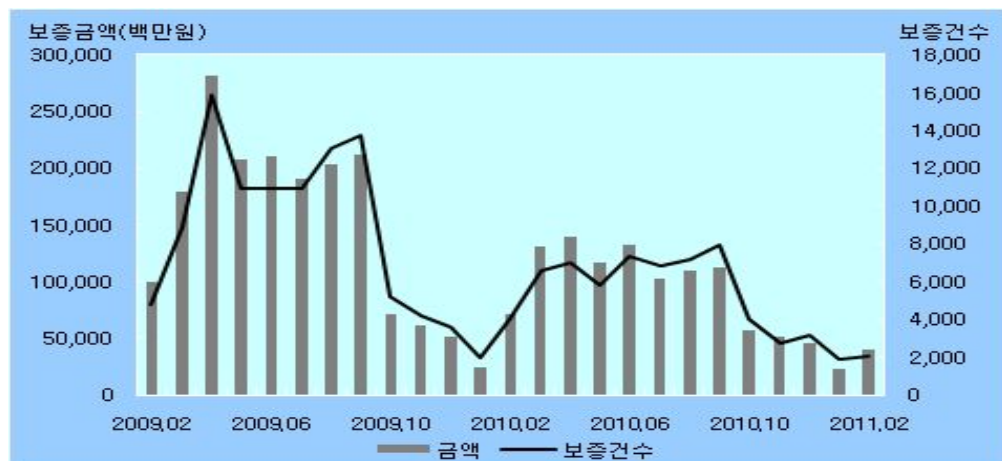
-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모두 전월대비 건수·금액 증가
- 2월 중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6.2%로 전월대비 2.8%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94.7%로 1.3%p 감소
- 한편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10.0%, 건수기준 3.6%로 전월대비 각각 2.3%p, 1.4%p 증가하였으며, 중기업 비중은 금액기준 3.8%, 건수기준 1.7%로 전월대비 각각 0.5%p증가, 0.1%p감소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10.12	2011.1	2011.2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3,048	1,819	1,945	126
	비율	95.9	96.0	94.7	-1.3
	금액	39,841	20,612	34,520	13,908
	비율	86.6	89.0	86.2	-2.8
소기업	건수	83	42	74	32
	비율	2.6	2.2	3.6	1.4
	금액	5,026	1,792	4,015	2,223
	비율	10.9	7.7	10.0	2.3
중기업	건수	49	33	35	2
	비율	1.5	1.8	1.7	-0.1
	금액	1,167	766	1,505	739
	비율	2.5	3.3	3.8	0.5
합계	건수	3,180	1,894	2,054	160
	비율	100	100	100	0
	금액	46,034	23,169	40,036	16,867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2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2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2월 서울의 수출은 36.3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1.2% 증가하였고, 수입은 87.1억 달러로 19.5% 증가
- 2월 전국의 수출은 389.6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7.9% 증가하였고, 수입은 361.1억 달러로 16.3% 증가

■ 서울의 2월 수출 1순위는 자동차부품,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자동차부품이 428,937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편직물, 반도체, 합성수지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가장 많아 950,297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순

〈표〉 서울 및 전국 월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10년				2011년		전년동월비	
		2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증감	증감률
서울	수출	3,001	4,172	4,083	4,220	3,832	3,637	636	21.2
	수입	7,291	8,768	9,504	9,671	9,606	8,713	1,422	19.5
전국	수출	33,039	43,358	41,292	44,145	44,679	38,959	5,920	17.9
	수입	31,044	36,880	38,621	40,056	41,764	36,113	5,069	16.3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백만불, %)

순위	품목명	2010년 2월		2011년 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3,001	35.1	3,637	21.2
1	자동차부품	200	-6.5	429	114.7
2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30	-12.5	426	28.9
3	편직물	155	-25.2	193	24.7
4	반도체	165	-4.1	182	10.3
5	합성수지	167	7.9	160	-4.1
6	합성고무	103	3.4	152	47.3
7	고무제품	124	-3.2	151	21.4
8	무선통신기기	101	-28.4	115	13.8
9	플라스틱제품	65	-3.5	73	12.3
10	철강재용기및체인	6	-11.2	71	1,041.1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단위: 백만불, %)

순위	품목명	2010년 2월		2011년 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7,291	41.8	8,713	19.5
1	석유제품	759	73.5	950	25.2
2	반도체	570	-2.5	623	9.4
3	컴퓨터	430	-6.9	467	8.6
4	자동차	194	-20.8	358	84.5
5	무선통신기기	142	-28.3	281	98.3
6	LPG	164	45.3	242	47.1
7	의류	222	9.9	235	5.8
8	농약및의약품	187	-1.3	226	20.7
9	기초유분	148	17.7	197	32.9
1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48	12.0	182	23.2

자료: 무역협회